

없음	명 칭(한글)	김유신유허비				
	명 칭(한자)	金庾信遺墟碑				
문화재지정	비지정					
시대/연대	시대	조선	연대	1872년(고종9년)		
유형/재질	유형	비문	재질	돌		
크기	높이 148cm, 너비 55cm, 두께 26cm					
출토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소재지	(한국)성균관대학교 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41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서체	해서(楷書)					
제작자	찬자	이만운(李晩運)	서자	미상	각자	미상
개관	<p>이 비는 1872년(고종 9년) 경상북도 경주에 건립된 김유신유허비(金庾信遺墟碑)로 이만운(李晩運)이 비문을 지었고, 한성원(韓性源)이 글씨를 썼다.</p> <p>읍지(邑誌)에 보면 재매정(財買井)은 김유신(金庾信)이 살았던 집터라고 쓰여 있다. 재매정(財買井)은 봉대(鳳臺) 남쪽, 오산(鰲山)의 북쪽으로 문수(蚊水) 옆에 있는데, 우물 앞에 있는 주춧돌은 아직도 번듯하며, 김유신의 공은 남녀 노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쓰여져 있다.</p> <p>현재 탁본은 성균관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한 시기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p>					
참고문헌	단행본 (단행본)조동원, 1982, 『한국금석문대계』 3, 원광대학교출판국					
관련금석문	없음					

판독	
판독자	유동옥

慶州 金庾信遺墟碑

新羅太角干開國公金先生遺墟碑（表 面）

（裏 面）

遺墟而碑所以重其地也此亦追遠報本之意而使過者式焉是則碑惡可已謹按邑誌」

有曰財買井卽我大角干開國公 金先生諱庾信遺宅也井在鳳臺南鰲山北蚊水之」

傍井之前礎石尙宛然夫以 角干公崑 勳偉烈輝映青史婦孺皆知院宇以享之墓道」

以祭之惟其嶽降之地至今數千載埋沒於荒烟野草之中殆不免樵採耕犁之所及焉」

世代愈遠古井無痕則某水某邱之爲我 公遺墟何從而知於是乎遠近姓孫合謀効力方立碑其墟可見其篤於報本而實曠世未遑之舉一鄉僉同之議也不佞適尹茲土尤不禁景慕之懷盖岳院初始吾先祖 退陶夫子用意甚勤故耳 公之遺孫爲不可無記又屬余以撰之余旣重其請且喜載名是碑不敢以不文辭而世系則家乘在矣石若時乎泐焉則後之人必復如今日之爲以是深有望於無窮焉」

崇禎紀元後五壬申端陽月下澣

嘉善大夫慶州府尹眞城李晚運謹撰 幼學谷山韓性源謹書

都都監通德郎月城崔元復

해석	
해석자	이기영

김유신유허비(金庾信遺墟碑)

앞면

신라(新羅) 태대각간(太대角干) 개국공(開國公) 김선생유허비(金先生遺墟碑)

뒷면

옛터에 비를 세운 것은 그곳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또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뜻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받게 만드니 어찌 비를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읍지(邑誌)를 살펴보니 재매정(財買井)은 우리 대각간 개국공 김유신이 살았던 집터라고 쓰여 있다. 재매정은 봉대(鳳臺) 남쪽, 오산(鰲山)의 북쪽으로 문수(蚊水) 옆에 있는데, 우물 앞에 있는 주춧돌은 아직도 번듯하다.

김유신의 뛰어난 공훈과 위대함은 역사에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은 여자나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사실이며, 사당을 세워 모시고 묘지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다만 태어난 곳은 지금까지 수 천 년 동안 황량한 안개와 들판의 풀 속에 묻혀버려 거의 땔나무 줍고 쟁기 가는 곳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더 멀어져 옛 우물이 흔적조차 없어지면 어느 냇물 어느 언덕이 우리 공의 옛터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때문에 원근의 같은 성을 가진 후손들이 계책을 모으고 힘을 합해 옛 터에 비를 세우기로 하였으니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돈독함을 알 수 있다. 이야말로 오랫동안 미처 할 겨를이 없었던 일이라 한 고을이 모두 한 뜻으로 뭉쳤으며, 이 땅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 더욱 추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산에 사당을 처음 세운 것은 우리 선조이신 퇴계선생이 깊이 마음을 쓴 결과이므로, 공의 후손들은 그것을 잊을 수 없어 또 내게 글을 부탁했다. 나는 그 부탁을 중히 여겼고 또 이 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기뻐 감히 글을 잘하지 못한다고 사양할 수 없었다. 세계(世系)는 집안의 문적이 있으므로 비석은 이렇게 새겼는데, 후세 사람들도 필시 지금 한 것처럼 할 것이니 이로써 무궁하기를 바란다.

승정기원후 다섯 번째 임신년(고종 11, 1872년) 5월 하순  
가선대부 경주부윤(嘉善大夫慶州府尹) 진성(眞城) 이만운(李晩運) 지음.  
유학(幼學) 곡산(谷山) 한성원(韓性源) 글씨.

도도감(都都監) 통덕랑(通德郎) 월성(月城) 최원복(崔元復)  
유학(幼學) 여강(驪江) 이재수(李在洙)  
도도청(都都廳) 유학(幼學) 곡산(谷山) 한태원(韓太源)  
영양(英陽) 남유수(南有洙)  
도감(都監) 출신(出身) 월성(月城) 손창갑(孫昌甲)

감독(監役) 절충(折衝) 월성(月城) 손영모(孫永謨).

